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3일, 김용민의원 외 169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 8. 23.) 상정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1소위(2024. 9. 9.)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4. 9. 11.)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5차 전체회의(2024. 9. 11.)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용민의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명품백 수수 등 다양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시세조종 의심 거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김건희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음. 또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임.

주요 내용으로는,

수사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고가 물품 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사건 등을 규정하였고,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총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였음.

조직 규모는 특별검사보(인원 불명시), 파견검사 20인, 특별수사관 40인, 파견공무원 40인으로, 이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특별검사보 2인, 파견검사 5인, 특별수사관 30인, 파견공무원 30인)보다 큰데, 이는 수사대상 및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음.

수사기간은 70일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판기간은 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하였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승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유상범 위원)

- 특검법은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문구 하나를 가지고 계속 여야가 협상해왔음. 대상이 지나치게 넓으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이 훼손될 수 있고, 사법권이기 때문에 국회가 특검법을 발동해서 수사한다는 것이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임.
- 내용상 수사대상도 불명확하고, 야당에서 고른 특검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김승원 위원)

- 수사대상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수사대상과 범위에 대한 조정을 했음.
- 명백한 법 위반 의혹이 있음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통과되어 특검이 시행되어야 함.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